

■ 2026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창작뮤지컬 분야) 3차 실연심의 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6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창작뮤지컬 분야)
- 회의일시 : 2026년 4월 1일(수) 11:00 ~ 2026년 4월 3일(금) 19:00
- 회의장소 : 아르코꿈밭극장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구소영, 김은영, 송윤정, 왕용범, 이양희, 한아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창작뮤지컬 분야는 동시대성을 지닌 새로운 작품을 발굴하고, 창작뮤지컬의 저변을 확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번 심의는 서류와 인터뷰 심사를 거쳐 선정된 8편의 작품(「더 게스트」, 「뤼미에르」, 「바다를 품은 해리엇」, 「베일」, 「섬, 고티 살주게」, 「소울 클리너스」, 「인터미션」, 「황홀한 그림자」)를 대상으로, 80분의 낭독공연과 창작진 인터뷰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심의기준은 예술성(40%), 사업계획의 타당성(30%), 공공성(10%), 관객평가(20%)로 구성되었으며, 낭독 공연이라는 형식적 한계를 전제로 하되, 실제 무대화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동시에 대본과 음악의 완성도는 물론 연출 방향과 제작 여건, 창작진 간 협업의 구조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심의위원들은 3일간 8편을 지켜보며 각 작품이 저마다의 색깔과 가능성을 품고 있고 저마다의 장점이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인물과 서사의 흐름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다듬어진 작품이 있었고, 음악적 장점을 훌륭히 살려 드라마를 끌고 가는 작품이 있었으며, 음악과 장면 구성에서 무대 위를 구체적으로 그려온 흔적이 느껴지는 작품도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하며 제작사의 운영 경험이나 창작진 간 협업의 시너지가 선명하게 드러난 경우에는, 장점은 최대한 살리면서 우려되는 지점들을 충분히 고쳐나갈 수 있으리란 믿음도 생겼습니다.

다만 몇 가지 아쉬움은 솔직히 짚어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낭독공연의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창작산실이 기대하는 수준의 새로운 시도와 완성도에 온전히 닿지 못한 작품이 많았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특히, 소재와 주제 면에서도 익숙한 설정이 반복되는 경향이 눈에 띄었는데, 뮤지컬이라는 형식이 가진 가능성을 생각하면 조금 더 모험적인 시도가 부족하여 아쉬웠습니다. 대본의 경우, 무대적 상상력이나 장면의 역동성보다는 스토리 중심으로만 기술된 작품이 적지 않았으며 음악의 경우, 작품의 개성을 선명하게 밀어붙이기보다 전체적인 톤이 흐릿하게 유지되거나 넘버 간의 연결이 다소 험거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가사가 음악적 형식에 대한 이해 없이 쓰인 듯한 지점은 8개 작품 모두에서 공통적인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향후 개발 과정에서 반드시 짚고 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낭독공연의 조건 안에서도 무대화 가능성과 확장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보여준 작품을 중심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느 때보다 긴 토론과 의견들이 오간 끝에 현 단계의 완성도만이 아니라, 창작진과 제작사의 역량을 바탕으로 앞으로 얼마나 더 나아갈 수 있을지도 함께 고려해 4개의 작품을 선정하였고, 최대한 필요 예산에 맞게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이번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작품들이 그 가능성을 더 깊이 파고들어, 다음에는 보다 선명한 얼굴로 무대에 오르기를 희망합니다. 심의에 참여해주신 모든 창작진과 제작진,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